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개막 동시대의 네트워크, 이야기, 이동과 언어의 지도



이끼바위쿠르르, <땅탑>,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 2023년 9월 21일(목)부터 11월 19일(일)까지 개최되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THIS TOO, IS A MAP)》 서울시립미술관 외 5개 전시장에서 40명/팀 작가들의 작품 61점 소개
- 전 세계의 다양한 예술가와 실천가들이 함께 서구중심주의 인식론과 세계관 밖에서 동시대 역사와 지식을 탐구하며
- 다공적이고 다층적인 동시대의 네트워크, 움직임, 이야기, 정체성과 언어를 통해 초국가적 변위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 아닌 지도
- 총 36점의 신작 제작을 지원하고 5점의 커미션 작품을 통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실험적이고 동시대적인 정체성 극대화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최은주)은 9월 21일(목)부터 11월 19일(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외 5개 전시 장소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THIS TOO, IS A MAP)》(예술감독 레이첼 레이크스)를 개막하였다.
- 《이것 역시 지도》는 다공적이고 다층적인 지도 그리기를 보여준다. 역사와 지식을 매핑하는 전 세계의 예술가 40명/팀과 총 61점의 작품을 공개하고, 서구중심주의 인식론과 세계관 밖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움직임, 이야기, 정체성과 언어를 소개한다.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SeMA벙커, 소공 스페이스, 스페이스 mm과 서울로미디어캔버스까지 총 6곳의 전시장에서 서구의 지도 제작법, 측량 체계와 관련한 인식론과 세계관 밖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움직임, 이야기, 정체성과 언어의 다양한 형태와 감각을 보여준다.
 - 비엔날레 전시장과 협력 공간에서 소개되고 배포되는 전시, 프로그램, 출판물은 오늘날의 전지구적 상황에 따라 초국가적이고 초국지적인 동시대 변위의 상태를 도식화하며, 고정형의 체제를 거스르는 동시대적 움직임을 주목한다.
 - 가변적인 개념과 코드화된 재현은 탈서구중심주의 지도가 어떤 모습일지에 관한 상상을 자극하며, 조정의 미학을 탐구한다.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은 비엔날레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전시 장소와 협력 공간을 아우르는 정신적 지도로 구성되었다. 설치, 비디오, 직물, 사운드, 퍼포먼스, 목판 인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작품들은 여러 방식의 지도 그리기, 땅의 표현, 사적이고 사회적인 기억, 경계와 언어의 풍경 등을 살펴보며 소통의 방

법으로서 지도 그리기를 제안한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제작 지원한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Agustina Woodgate)의 <신세계 지도(The Times Atlas of the World)>(2023)는 550쪽 분량의 지도책에 재현된 국가, 국경, 정치적 지표, 주요 랜드마크를 지워서 흐릿하게 처리한 기존 작품 <세계 지도(The Times Atlas of the World)>(2012)을 재구성한 신작이다. 지도책을 자동으로 넘겨주고 실시간으로 스캐닝하는 기계 장치,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신경망 학습의 조합으로 재구성한 새로운 세계 지도의 이미지가 전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진다.
-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의 <아토피아 필드(Atopia Field)>(2021)는 식민지 공간의 지리를 상상하여 펼쳐 보이는 다이어그램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해방과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가상의 영토, 국가와 도시는 일견 해석할 수 있는 익숙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를 알 수 없는 다이어그램 안에 가상의 존재들이다. 바닥에 놓인 카펫 형태의 작품은 관객이 밟고 지나가거나 그 위에 앉거나 누울 수 있게 하여 허구의 공간에 물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사회정치적 상상을 시도하는 대안적인 영토가 된다.
- 1층 전시장에 설치된 사샤 리트빈체바와 베니 와그너의 비디오 설치 <콘스탄트(Constant)>(2022)는 지도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재현하는 추상적 모델을 생산하는 측량 표준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역사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두 작가는 작품에서 여러 층위에서 관련한 역사를 다루며, 평등주의, 관료주의, 정의와 권력의 몸과 개념에 관한 관계들을 직조한다.
- 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사전 관람을 시작한 토크와세 다이슨(Torkwase Dyson)의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힘의 곱셈) (I Belong to the Distance 3, (Force Multiplier))>(2023)은 안무가 권령은과 지난 수 개월간 여러 차례의 미팅과 대화를 통해 교류한 결과로 완성되었다. 이와 같은 프리 프로덕션의 과정은 미국과 한국의 해방 전략의 역사적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의 시각 표현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명의 제

목으로 완성된 권령은의 퍼포먼스는 움직임을 통해 소속, 장소, 배제의 상태를 다룬다. 덧붙여, 토크와세 다이슨 작가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완성된 새로운 설치 작품 <쿠지차굴리아(자유를 계획하기) (Kujichagulia (Planning Freedom))>(2023)는 과거와 현재의 연구를 지도화하고, 나아가 도시의 역사와 건축과의 만남을 하나의 벽면으로 불러 모은다.

- 서소문본관 마당에 설치된 작품 <땅탑(Earth Monument)>(2023)은 한국의 미술 콜렉티브 이끼바위쿠르르가 탐구해온 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던 한국의 작가들은 다양한 예술실천을 전개하며 지역성과 지역의 미술 언어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경험했던 이끼바위쿠르르에게 미술의 지역성은 주요한 주제로 자리 잡게 된다. 부동산의 ‘평’ 단위를 활용해 만들어진 여러 형태의 탑들은 무연의 공동체가 오랜 시간 흠을 두드리고 밟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연결의 공동체와 그것의 임시성을 드러낸다. 흠을 빚어 세운 기념비들이 미술관 뜰에 세 개의 군을 이루고 선 모습은 작은 마을이나 신도시를 연상시키며, 흠으로 된 단순한 형태의 조형물이 예상치 못한 일상 환경과 만나 긴장감을 자아낸다.

□ 서소문본관 2층에서는 지도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재현과 실제 간의 간극을 살펴보고, 인간의 주관적인 소통 방식에 뿌리를 둔 새로운 지도 만들기로써 작품들을 소개한다.

- 쉐신(Shen Xin)의 <མ་གཟིགས་པ་ལྟར་ [지구는 푸르네]> (2022)는 작가와 티베트어 교사 སྒྲིང་དར་འཛོམས། [스키 트라죌사]가 수업 중에 티베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대화에서 사계절마다 달라지는 빛과 색의 움직임을 언어화한 작품이다. 작가는 먼저 계절별로 다른 하루를 재현하는 조명 설치를 위해 빛 기술자 카일 가벨에게 조명 연출의 방향성을 글로 적는다. 그리고 무대에서 재연된 조명에 관하여 만다린어로 적고, 이것을 다시 티베트어로 번역한 후, 만다린어와 티베트어로 나누는 대화의 교재로 사용한다. 3채널 비디오 설치 작품은 이 과정에서 완성된 빛의 재현, 둘의 대화를 영

어, 한글과 티베트어로 번역한 자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Christine Howard Sandoval)은 이번 여름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에 머물며 신작 <출현의 표면(두폭화) (Surface of Emergence (diptych))>(2023)를 제작하였다. 종이 위에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의 복합적인 토양을 어도비 점토와 섞어 완성한 드로잉 작품은 스페인 미션건축의 아치 형상을 주제로 하고 있다. 작품은 섬세한 드로잉 기술과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다양한 식민주의 건축의 아카이브이면서 동시에 원주민의 미래주의 현장으로 연결하는 경로를 제시한다.
- 이번 비엔날레는 2층 전시장의 한 공간 전면을 활용하여 기하학과 격자를 주요 매체로 사용했던 전설적인 미국 작가 찬나 호르비츠(Channa Horwitz)의 <오렌지 그리드(Orange Grid)>(2021-2023)를 소개한다. 전시 공간의 바닥과 벽을 뒤덮은 오렌지색 격자와 여러 개의 검은색 육면체로 구성된 이 작품은 기하학이라는 엄정하고 합리적인 공간과 겉으로 보기에 고정된 조건을 바꾸기 위해 개입하는 인간의 마찰 간에 생겨나는 개념적 간극을 탐구한다.

□ 서소문본관 3층에서는 국경을 넘는 신체들의 이동과 기억을 나열하거나 혹은 어떤 존재를 출생지나 원천적 문화와 연결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합적인 디아스포라의 양태를 질문한다. 나아가, 다양한 미학, 글로벌 기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이동과 생태적 변화를 추적하여, 인간과 영토를 착취하는 범지구적 환경 구조를 들여다보고, 주변화된 인식론과 문화들을 시각화한다.

- 왕보의 <인테리어 분수(Fountain of Interiors)>(2022-2023)는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조명과 실내장식 산업의 서사를 반추한다. 작품은 인공적이고 산업화된 풍경 속에 감춰진 현대와 도시 삶의 아이러니와 물리적 공간으로 규정되는 문화 정체성을 다시 살펴본다. 작품을 구성하는 LED 조명-분수와 플라스틱 조화는 을지로에서 구입한 재료들이다.
-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Mercedes Azpilicueta)의 신작 연작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국 I ~ V (Five Spells & A Song I ~ V)(2023)은 한국에서 생산한 직물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암스테르담에서 재 제작된 설치 작품으로, 작가의 모국인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한인 커뮤니티와 이주민의 정체성 구축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또 다른 신작 <Una canción coreana [한국 노래]>(2023)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이주한 5명의 한국 여성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의 삶과 남미의 직물 산업에 관한 증언을 수집하여 추상적 형태로 재구성한 사운드 작품이다.

- 프랑소아 노체의 <코어 덤프(Core Dump)>(2018-2019)는 광섬유 케이블, 철새의 이동, 상충하는 근현대사, 하천 시스템과 무역로와 같은 복잡한 관계망과 네트워크로 얽혀 있는 네 도시; 킨샤사, 선전, 뉴욕, 다카르를 배경으로 하는 비디오 연작과 한국의 전자폐기물을 활용한 조각으로 구성된 설치 작품이다.
- 비엔날레 커미션으로 제작된 최찬숙의 <THE TUMBLE>(2023)은 미국 아리조나의 사막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과 그곳에서 자라나는 생명과 생태를 다루는 작품이다. 그동안 꾸준히 이동, 이주, 공동체의 매개체들을 통해 땅과 몸의 다층적인 관계를 탐구해온 작가는 이번 신작에서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통해 땅에서 ‘방출된’ 몸과 그것의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흔적을 되새김한다. 작품은 바람을 타고 형성되는 회전초와 이것이 나타나는 지역에 관한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종의 생물학적 특이점, 변형된 몸의 제스처와 그것의 여러 층위를 탐구하며, 이동과 이주에 관한 개념적 서사를 구축한다.

-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제시 천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서베이 전시 <시, language for new moons>를 소개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홍콩, 캐나다, 미국 등 타지에서 거주하며 살아온 작가는 사회와 기호학 구조에 균열을 더하는 언어의 추상화를 수용하며, 한국의 역사, 트라우마, 그리고 시학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비디오, 조각, 드로잉 등의 매체를 통해 작가는 가족사, 한국의 민속 문학, 그리고 소속감 없는 변위의 상태를 추적한다.

- <오 더스트(O dust)>(2023)는 문화 유산에 관한 유럽 중심적 번역과 역사성을 주변화하며, 언어, 유산, 무형문화를 가깝게 비추는 비디오 설치 작품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사에서 촬영한 작품은 통역 부스, 통역기, 마이크, 텅 빈 회의실, 무형문화유산아카이브 등 제도화된 말하기 장치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이미지와 더불어 독해할 수 없는 중얼거림이나 허밍을 중첩하고, 유럽 중심적인 언어의 위계와 문화 패권에 도전한다.
- <시: concrete poem>은 틈, 구멍, 침묵과 시간을 거쳐 전달되고 발화하는 말하기와 선언의 의미를 통해 언어와 물질성에 관한 명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작품이다. 한지로 만든 작품에서 시각화된 추상적 형태는 한글과 영어의 문자소를 연상시키지만 읽을 수 없이 암호화된 언어이다. 작품은 읽을 수 있는 것과 읽을 수 없는 것 사이에서 디아스포라적, 실존적, 우주적 조건을 투영한다.

□ SeMA 벙커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인간, 기술, 광물의 이동을 잇는 연결고리에 주목한다. 각 작품들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자원을 뽑아 쓰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때 초래할 결과와 복합적인 관계들을 형상화한다.

- 로-데프 필름 팩토리(Lo-Def Film Factory)의 <지하 흔적 아카이브 (The Subterranean Imprint Archive)>(2021-2023)는 VR 비디오 설치를 활용하여 중-남부 아프리카의 기술정치 유산이 남긴 흔적을 추적하는 반(反)아카이브적 작품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를 위한 우라늄이 채굴되었던 콩고민주공화국의 상콜로베헤 광산에서 출발하는 작품의 서사는 19세기 자원 채굴을 위해 진행된 지도 제작의 역사,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준비를 위해 감행된 아프리카 대륙 착취, 그리고 국제적 기업이 아프리카 영토, 생태계와 사람들에게 끼친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며 서사를 재구성한다.

□ 서울 지하철의 시청역과 을지로역을 연결하는 통로는 플라자 호텔과

소공지하상가로 연결된다. 이 지하 공간에는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 길거리 음식, 의류나 케이팝 상품을 판매하는 여러 상점이 있고, 그 사이에 미술 공간 스페이스mm과 소공 스페이스가 있다. 비엔날레는 이 독특한 공간에서 공공과 사적 공간의 경계, 일상 속 가상과 실재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야기되는 정치성과 긴장에 관한 전현선과 왕보의 작품을 소개한다.

□ 서울의 고가 보행로인 서울로 7017에서 조망 가능한 대형 스크린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는 유어 컴퍼니 네임(YOUR COMPANY NAME)의 신작 <가제 제목 여기(WORKING Title Title HERE)>(2023), 나타샤 톤테이(Natasha Tontey)의 신작 <2번 돌의 아이들(Children of the Stones Number Two)>(2023), 라야 마틴(Raya Martin)의 <아르스 콜로니아(Ars Colonia)>(2011)를 비엔날레 티저 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 유어 컴퍼니 네임의 <가제 제목 여기>는 북유럽의 주변 환경이 낯선 외지인의 시선으로 다문화 상점, 각종 홍보 전단지, 기타 일상적인 소통에서 나타나는 시간 언어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작품이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왓츠앱 이미지 덤프, 이더패드에서 오고간 즉석 대화 등 일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것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간편한 프로그램으로 편집한 영상은 익숙한 일상의 미학을 다시 보며,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THIS TOO, IS A MAP)》는 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기존의 비엔날레 문법을 지양하고, 초국가적 삶의 태도와 ‘문화적 혼종’을 통해 동시대의 변화와 움직임을 보여주는 작가 40명/팀과 프로그램 및 출판물에 참여하는 작가, 필자, 연구자, 뮤지션과 안무가 25명/팀까지 총 65명/팀의 작품으로 동시대

관람객들과 만난다.

- 비엔날레 전시 초대 작가는 구이도 야니토(Guido Yannitto), 나타샤 톤테이(Natasha Tontey), 놀란 오스왈드 데니스(Nolan Oswald Dennis), 라야 마틴(Raya Martin), 로-데프 필름팩토리: 프랑소와 노체, 에이미 윌슨)(Lo-Def Film Factory: Francois Knoetze and Amy Louise Wilson),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Mercedes Azpilicueta), 미코 레베레자(Miko Reverenza), 사노우 우마르(Sanou Oumar), 사샤 리트빈체바&그레임 안필드(Sasha Litvintseva & Graeme Arnfield), 사샤 리트빈체바&베니 바그너(Sasha Litvintseva & Beny Wagner), 쉐신(Shen Xin), 스테파니 제미슨(Steffani Jemison),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Agustina Woodgate), 아나 벨라 가이거(Anna Bella Geiger), 아니말리 도메스티치(Animali Domestici), 아르차나 한데(Archana Hande),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Anna Maria Maiolino), 엘레나 다미아니(Elena Damiani), 왕보(Bo Wang), 유어 컴파니 네임: 클라라 발라구에르, 센지즈 멘규치(Your Company Name: Clara Balaguer and Cengiz Mengüç), 이끼바위쿠르르(ikkibawiKrrr), 이재이(Jaye Rhee), 이케조에 아키라(Aikira Ikezoe), 전현선(Hyunsun Jeon), 정소영(Soyoung Chung), 제시 천(Jesse Chun), 주마나 에밀 아부드(Jumana Emil Abboud),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 찬나 호르비츠(Channa Horwitz), 최윤(Yun Choi), 최찬숙(Chan Sook Choi), 최태윤(Taeyoon Choi), 켄트 찬(Kent Chan),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Christine Howard Sandoval), 텐진 폰초그(Tenzin Phuntsog), 토크와세 다이슨(Torkwase Dyson), 파이어룰 달마(Fyerool Darma), 펌커 헤르그라벤(Femke Herregraven), 프랑소와 노체(Francois Knoetze), 그리고 히메나 가리도-레카(Ximena Garrido-Lecca) 이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행사와 프로그램의 자세한 소식은 비엔날레 웹사이트 mediacityseoul.kr에서 사전 예약 링크와 함께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이번 비엔날레는 동시대의 여러 이동과

움직임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세계 지도로서 제시된다. 전시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작품들은 서구식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벗어나 현재의 세계 풍경을 구성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탐구하며, 가변적인 개념이나 코드화된 재현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의 네트워크, 이야기, 정체성과 언어를 파악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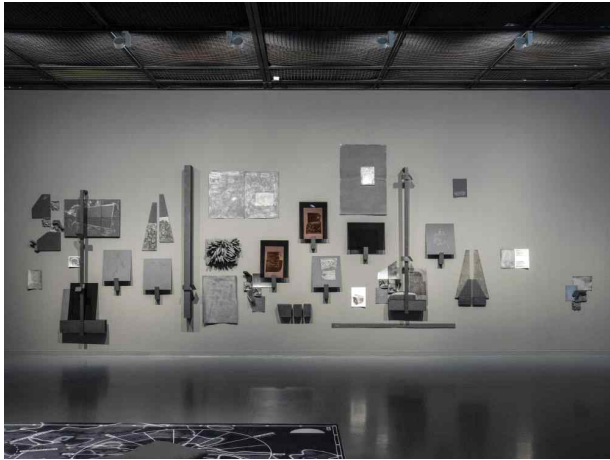
○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https://sema.seoul.go.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useumofart](https://www.instagram.com/seoulmuseumofart)
 트위터: twitter.com/SeoulSema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museumofart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고 운영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지난 27년간 미디어로 상징되는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서울시의 주요한 현대미술 행사다. 1996년부터 세 번 개최되었던 《도시와 영상》 전시에서 서울과 미디어에 대한 실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다.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비엔날레 홈페이지 mediacityseoul.kr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트위터	twitter.com/@mediacityseoul
페이스북	facebook.com/mediacityseoul
유튜브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

붙임 1. 주요 이미지 ※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정확한 크레딧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	크레딧
	이끼바위쿠르르, <땅탐>,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토크와세 다이슨,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힘의 곱셈)>,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토크와세 다이슨(조각), 권령은(안무),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힘의 곱셈)>,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사전 행사,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토크와세 다이슨, <쿠지차굴리아(자유를 계획하기)>,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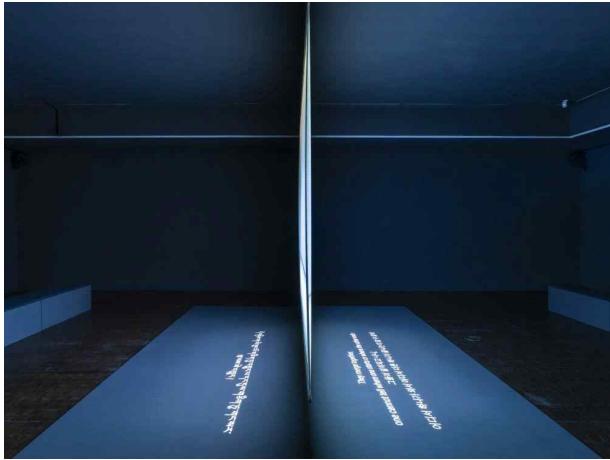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 <세계지도>, 2012; <신세계 지도>,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사샤 리트빈체바&베니 바그너, <콘스탄트>, 2022.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 <출현의 표면(두폭화)>,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웬신, <མ་གཞི་ཐོན་པོ་ལྟུན་པ། [지구는 푸르네]>, 2022.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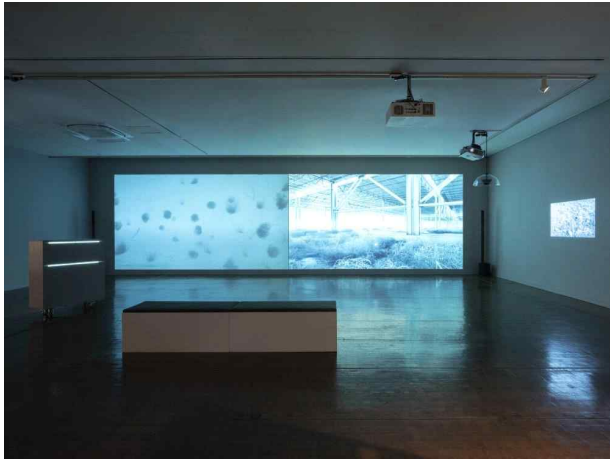
찬나 호르비츠, <오렌지 그리드>, 2013-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왕보, <인테리어 분수>, 2022-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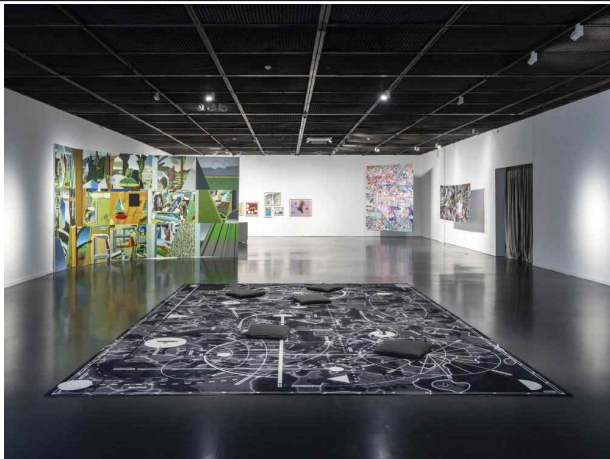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국 I ~ V>,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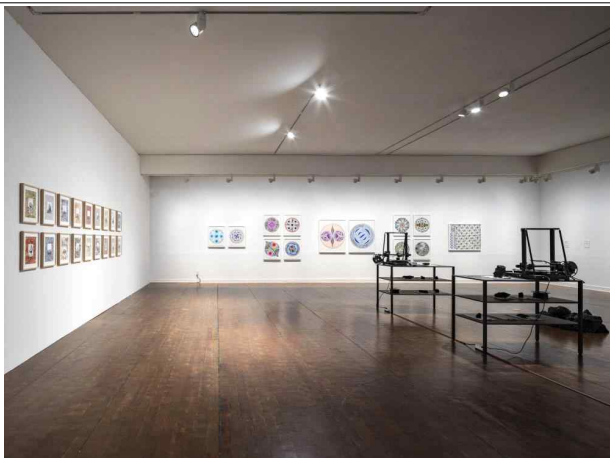
최찬숙, <THE TUMBLE>,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프랑소와 노체, <코어 덤프>, 2018-2019.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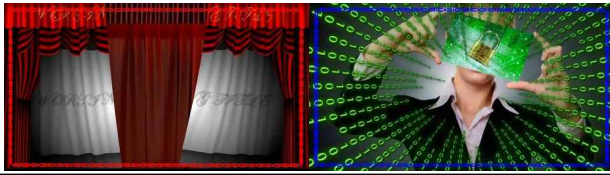
제시 천, <시, language for new moons>,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서울역사박물관,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로-데프 필름팩토리(프랑소와 노체, 에이미 루이스 윌슨), <지하 흔적 아카이브>, 2021-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SeMA 벙커,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전현선, <이름 없는 산속으로>, 2023.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전시
전경, 스페이스mm, 2023. 사진: 글림워커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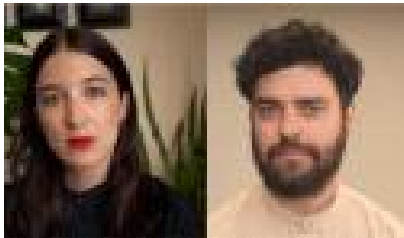
유어 컴파니 네임(클라라 발라구에르, 센지즈
멘규치), <가제 제목 여기> 스틸, 2023. 작가 제공

붙임 2. 작가 소개

이미지	크레딧
	아구스티나 우드게이트(Agustina Woodgate)는 사회를 구축하는 각종 기반시설 및 경관의 정치적 요소를 지리학적인 관점으로 탐구한다. 연속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전개되는 작가의 작업은 ‘변위’ 현상을 고찰하고, 땅, 시간, 자원 등 인류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담론과 관련한 재료를 창작 도구로 사용한다. 이론과 실천이 공존하는 그의 작업은 장소와 맥락에 반응하며 사회 질서, 자원 관리, 정보 배포의 수준, 명료성, 접근성에 대해 비평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작품은 부에노스아이레스 BIENALSUR(2021), 뉴욕 휘트니비엔날레(2019), 베를린비엔날레(2016), 이스탄불디자인비엔날레(2018), 베이 에어리아 뉴터레인스, 덴버 아메리카스 비엔날레(2015), 크라쿠프 플레이퍼블릭(2014), 세일럼 피바디에섹스박물관(2018), 워싱턴 예술과인문학커미션(2014), 마이애미 바스미술관(2013), 마이애미 아트인퍼블릭플레이시스, 베를린 현대미술관(2012)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소개되었다.
	토크와세 다이슨(Torkwase Dyson)은 자신을 화가라고 정의하며, 생태, 인프라, 건축에 걸친 연속성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소개해 왔다. 다이슨의 추상적인 작품들은 긴장, 움직임, 규모, 실재와 무한한 공간이 뒤섞여 구축하는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시스템이다. 흑인과 유색인종이 ‘공간’을 형상화된 정보로 인식하고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며, 인류의 존립에 보다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적 맥락에서의 해방 전략에 대해 역사적이고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더욱 생생한 지리를 위한 잠재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을 찾는다. 작가는 붓질을 쌓아가고 표면을 구축하며 천천히 회화를 만들어 나간다. 이미지와 오브제 사이에서 긴장감을 형성하는 미니멀한 기하학적 요소들도 회화의 일부로 간주한다. 붓 질과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각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회화적 행위는 섬세한 기호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과 같은 선들을 병치하며 더욱 시적인 형상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엄정한 구성으로 완성된 작품은 건축적인 존재감과 시각적 중력을 드러낸다. 작가는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 아프리카 미술관, 뉴욕 휘트니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과 캘리포니아 아프리카아메리칸박물관에서의 단체전과 워터빌 콜비대학교 미술관, 시카고 그래엄 순수미술 재단, 필라델피아 스쿨길 환경교육 센터, 버밍햄대학교 수잔 램버그 어스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끼바위쿠르르(ikkibawiKrrr)는 시각 연구 밴드이다. 현재 고결, 김정원, 조지은으로 구성된 이끼바위쿠르르는 식물, 자연현상, 인류, 생태학과의 연계를 탐구한다. 작품명은 이끼바위와 의성어 쿠르르의 조합어이다. 이끼는 대기와 흙의 경계층에서 작은 몸으로 적응하며, 주변환경에 따라 그 세계를 확장시킨다. 이들은 이끼가 살아가는 방식을 프로젝트와 태도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열대와 해초를 연구하며 또 한편에서는 농부들과 활동하고 있다.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이 움직임의 일부가 되어 그 경계층을 넓힌다는 의미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주요 전시로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광주, 2023), 도큐멘타 15, 《Michikusa: Walks with the Unknown》(미토시 아트타워미토 현대미술갤러리), 올해의 작가상 201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Cosmopolis-Collective Intelligence》(파리 풍피두센터) 샤르자비엔날레 12 《The Past, the Present, the Possible》(아랍에미리트, 2015), 《nnncl & mixrice》(서울 아뜰리에에르메스, 2013), 제7회 아시아 퍼시픽 트리에날레(브리즈번 고마 현대미술관, 2012) 등이 있다.
	현대미술가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문필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샤 리트빈체바(Sasha Litvintseva)와 베니 바그너(Beny Wagner)는 2018년부터 다수의 영상, 설치, 텍스트 작업 및 교육 활동을 함께 해왔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일깨우는 도구로서 ‘무빙이미지’, 즉 일반적으로는 영상이라 불리는 표현 방식에 접근한다. 그들의 작업은 신체 대 환경, 지식 생성 및 활용에 대한 체제 대 권력, 그리고 자연세계에 대한 인식 대 분별이라는 서로 맞닿은 개별 개념들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임계점에 주목한다. 그들의 공동작업은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덴마크 코펜하겐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벨기에 겐트 코르티잔 영화제, 리투아니아 CAC빌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필름포럼, 뉴욕 영상박물관, 독일 베를린 트랜스미디어알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닉엑스페스티벌, 독일 베를린아토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임팩트페스티벌, 폴란드 브로츠와프 미디어아트비엔날레, 리투아니아 빌뉴스 발틱트리엔날레 등 다수의 국제 행사에서 소개되었다.
	크리스틴 하워드 산도발(Christine Howard Sandoval)은 캐나다 원주민 스콰미시, 슬레일-와우투스, 머스퀴엠의 터전이었던 ‘양도되지 않은 영토’에서 태어났다. 그는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위치한 에밀리카예술대학교 예술학부에서 학제 간 활동을 담당하는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를 주 거점으로 한 찰론 원주민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다. 산도발의 작품은 상파울루대학교 현대미술관(2022), 밴쿠버 현대미술갤러리(2021), 포틀랜드 오리건컨템포러리(2021), 오클랜드

	캐피탈리즘박물관(2017), 뉴욕 바리오미술관(2013), 킨즈 소크라테스조각공원(2010) 등에서 전시되었으며, 주요 개인전으로는 ICA샌디에고에서 열린 《Coming Home》(2021)과 콜로라도컬리지에서 멜론재단 레지던시 작가로 있을 당시 동 대학의 콜로라도스프링스 파인아트센터에서 개최한 《Channel》(2019)이 있다. 작품은 로스앤젤레스 해머미술관과 샌디에고 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찬나 호르비츠(Channa Horwitz, 1932-2013)는 50여 년간의 미술 활동을 통해 시각적으로 복잡하면서 체계적인 작품의 창작을 구성하는 논리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리옹 현대미술관(2019)과 밴쿠버 현대미술갤러리(2018)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Thinking Machines: Art and Design in the Computer Age, 1959-1989》(2018)을 포함한 여러 단체전에서 소개된 바 있다. 2016년에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전시 《Inbox》 시리즈로 작품이 소개되었다. 그 외에도 런던 레이브 로(2016), 베를린 KW현대미술관(2015), 브란덴부르크주 포츠담의 BKV미술관(2009) 등에서 열린 개인전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미술 기관에서 열린 단체전에서 소개된 바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네덜란드에서 수학한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Mercedes Azpilicueta)는 2021년부터 암스테르담 헤릿리트펠트아카데미의 텍스타일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작가는 뒤셀도르프 필라라컬렉션 (2022), 리히텐슈타인 파두츠의 리히텐슈타인현대미술관(2022),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2021), 브레티니쉬르오르주 CAC브레티니(2021), 런던 가스웍스(2021), 볼차노현대미술관(2020), 에인트호번 반아베미술관(2019), 마드리드 센트로센트로(2019), 부에노스아이레스현대미술관(2018) 등에서 개인전을 선보였다. 수상 경력으로는 프리 드 롬(Prix de Rome)(2021)과 프리즈아티스트어워드(2018) 후보에 올랐었고, 제8회 마르타 가르시아-파하르도미술상(2021)과 ARCO젊은 예술가상(2019)을 수상했다.

	최찬숙(Chan Sook Choi)이 시도하는 물리적 이동과 정신적 이주에 관한 서사학적 실험은 장르를 넘나드는 다학제적 방법론을 통해 전시, 책, 공연 및 출판 등의 형식으로 재현된다. 특히 이주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한 파편들을 직접 마주하고 수집하며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동적인 지형과 새로운 지역성을 만들어 간다. 작가는 아트선재센터(2017), 타이페이 디지털 아트센터(2010)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서울 국립극장 국가브랜드 공연을 포함하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볼프스부르크 현대미술관과 같은 곳에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프로그램(2017)에 이어 독일 연방정부재단 시각예술지원작가(2021)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SBS가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비디오-시를 비롯한 단편 영화, 드로잉, 조각과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제시 천(Jesse Chun)의 작품은 토론토 현대미술관(2020, 2021), 용인 백남준아트센터(2020), 뉴욕의 조각센터(2020), 퀸즈미술관(2018), 더드로잉센터(2019), 브루클린음악아카데미(BAM, 2018), 더뉴스쿨 산하 베라리스트 예술 및 정치센터(Vera List Center for Art and Politics, 2020), 런던의 화이트채플 갤러리 (2023)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기관에서 소개되었다. 미국의 조안 미첼 재단으로부터 화가와 조각가에게 수여하는 기금, 프랑스 파리 아트바이트랜스레이션 프로그램, 뉴욕 ISCP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국립예술기금(NEA) 펠로십 등의 수혜 경력이 있으며,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도서관, 워싱턴 D.C. 스미소니언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도서관, 카디스트 예술재단(프랑스, 미국) 등 주요 기관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로-데프 필름팩토리(Lo-Def Film Factory)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프랑소와 노체와 에이미 루이스 윌슨으로 구성된 참여형 예술-제작 공동체 이니셔티브이다. 이들은 비디오 아트, 콜라주, 조각 설치, 가상현실 기술 외에도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실험하며, 이를 위한 아카이브 조사, 드라마트루기와 시각표현의 전략 연구를 진행한다. 공동 창작과 실수를 통한 실험적 실천을 강조하는 이니셔티브는 높은 생산 가치 보다는 생각과 경험이 환기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비디오와 뉴미디어를 통한 스토리텔링 공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전현선(Hyunsun Jeon)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지배적인 관점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디테일을 모아, 하나의 집합체로서 구성하는 총체적 관점을 주목하고, 각 상황마다 존재하는 예외적인 요소들을 탐구한다. 《Meet Me in the Middle》, 갤러리2, 서울(2022); 《열매와 모서리》, 갤러리2, 서울(2020); 《붉은 모서리》, P21, 서울(2019); 《나란히 걷는 낮과 밤》, 대안공간 루프, 서울(2018) 등이 있다. 또한 《외연과 심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2023); 《아트 스펙트럼2022》, 리움 미술관, 서울(2022); 《Another Asian Artist》, 더샵하우스, 홍콩(2022); 《현대회화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2019) 등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 송은미술대상전에서 수상하였다.
	왕보(Bo Wang)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미술가이자 영화감독, 그리고 연구가이다. 그의 작업은 미국 뉴욕 구겐하임미술관(2017), 뉴욕 현대미술관(2013), 러시아 모스크바 가라지현대미술관(2017), 네덜란드 로테르담국제영화제(2020), 일본 도쿄 이미지포럼페스티벌(2018, 2022), 덴마크 코펜하겐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2013, 2023), 중국 광저우 타임스미술관(2010, 2019), 홍콩 파라사이트(2020)를 포함한 전 세계 여러 장소에서 선보여졌다. 수혜 및 수상 경력으로는 로버트 플라허티 필름세미나 펠로우십(20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2017-2018),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현대미술센터(2016) 레지던시 등이 있으며, 그의 영화 <An Asian Ghost Story>(2023)는 코펜하겐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뉴:비전상(2023)을 수상했다.

붙임 3. 주요 행사 안내

구분	일자/시간	제목	장소	내용
사전 행사	2023.9.4(월) 14:00~17:00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 행사	서울시립미술관 로비와 마당	작품 프리뷰, 퍼포먼스, 작가와의 대화
프리뷰	2023.9.20(수) 13:00~17:00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리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SeMA 병커, 스페이스mm, 소공 스페이스, 서울로미디어캔버스	전시 프리뷰
토크	2023.9.21(목) 13:00~14:50	라운드 테이블: 다른 곳이 되는 이곳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옥상	작가와의 대화
	2023.9.21(목) 15:00~16:40	라운드 테이블: 과거의 퓨처리즘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옥상	작가와의 대화
퍼포먼스	2023.9.21(목) 13:00~14:50	이재이, <아리조나 카우보이(as part of Far West, So Close)>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전시실	퍼포먼스 작품
라이브 행사	2023.9.21(목) 13:00~14:50	켄트 찬 & 서울커뮤니티라디오, <열대 주파수 라디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옥상	DJ 세션
토크	2023.9.22(금) 13:00~14:50	제시 천, <시, language for new moon>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작가와의 대화
퍼포먼스	2023.9.23(토) 15:00~15:30	메르세데스 아스필리쿠에타, <다섯 번의 주문과 노래 한곡>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전시실	퍼포먼스 작품
라이브 행사	2023.9.23(토) 16:00~17:30	비무장 여신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스크리닝, 대화
	2023.9.24(일) 14:00~15:30	가내 저항: 라사 & 아사		스크리닝, 대화
	2023.9.24(일) 16:00~17:00	가내 저항: Nohdong/노동Nongkrong		렉처 퍼포먼스
퍼포먼스	2023.9.26(화) 17:00~17:30	권령은, <나는 그 거리에 소속된다 3.(힘의 곱셈)>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로비	퍼포먼스 작품
토크	2023.10.7(토) 14:00~17:00	최찬숙, <은유로서의 네이티브: 생물지리학과 소속감>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작가와의 대화
워크숍	2023.10.8.(일), 10.15(일), 10.22(일), 10.29(일) 14:00~17:00	안데스,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외	관객 참여형 스트릿 댄스 워크숍
행사	2023.11.5(일) 14:00~17:00	안데스,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로 춤추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로비	워크숍 결과 모임
워크숍	2023.10.14(토), 10.21(토) 14:00~17:00	이끼바위쿠르르, <땅탑 워크숍>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관객 참여형 만들기 워크숍
퍼포먼스	2023.10.21(토)	이재이, <아리조나	서울시립미술관	퍼포먼스 작품

	16:00~18:00 (시간 미정)	카우보이(as part of Far West, So Close)>	서소문본관 3층 전시실	
온라인 행사	2023.10.21(토) 16:00~20:30	이야기 역시 지도: 함께 해야만 말할 수 있는 이야기	온라인	온라인 스크리닝과 대화
워크숍	2023.10.27(금) 19:00~21:00, 10.28(토) 13:00~16:00	최태윤&김민아, <스마트폰과 이별하기>	온라인(1차),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2차)	관객 참여형 워크숍
행사	2023.11.13.(월) 시간 미정	SeMA-HANA 미디어 아트상 시상식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로비	시상식

기본 정보

- 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진
(02-2124-8975/ nakwonjin@seoul.go.kr)
- 홍보 문의: 고객홍보과장 봉만권(02-2124-8912/ go1107@seoul.go.kr)
학예연구사 김채하(02-2124-8928/ chaeha@seoul.go.kr)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서울시립미술관 웹하드
 - 주소: <http://sema.webhard.co.kr>
 - 아이디: semapress
 - 비밀번호: sema
- 이미지 다운로드([내리기전용] 폴더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폴더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이것 역시 지도》 개막] 폴더)